

‘칸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짐멜의 칸트 해석*

-베를린 강의록 『칸트』(WS 1902/3)를 중심으로-

최 성 환 · 지 경 진**

주제분류 독일관념론, 현대철학

주요어 주지주의, 칸트문헌학, 칸트학, 양적 개인주의, 질적 개인주의, 칸트, 짐멜

요약문

이 연구는 짐멜과 칸트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짐멜은 칸트에 대한 연구를 박사학위와 교수자격논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짐멜은 칸트를 단순히 수용하려는 ‘칸트문헌학’(Kantphilologie)의 태도를 비판하고 칸트 철학의 현재성을 조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글은 짐멜의 칸트 철학의 해석과 수용을 그가 1902/3 겨울학기 베를린 대학에서 행한 『칸트 강의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강의록은 전체로서의 칸트 세계관의 특징과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칸트 철학의 관계를 다룬 2개의 강의, 칸트의 인식론을 다룬 5개의 강의, 칸트의 윤리학을 다룬 7개의 강의, 미에 대한 칸트의 이해를 담은 1개의 강의 그리고 “새로운 개인주의”와 연관해서 칸트적인 사유 유형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시도를 담은 1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칸트 철학에 대한 짐멜의 관계는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칸트철학은 당시의 강단철학을 지배하는 산맥으로 짐멜이 불가피하게 등장해야할 대상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스스로 표현하듯 짐멜은 “칸트학적 연구”(die kant wissenschaftlichen Studien)에서 인식론적 관심을 발전시켰으며 이것은 그의 삶과 형식의 이원론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칸트철학이 19세기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의 실제적인 현실과 문제 영역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짐멜의 과제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

* “이 논문은 2012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와 세계상의 건립에 있어서 칸트의 학문적이며 부분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이론들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짐멜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점차 칸트 철학의 제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칸트의 여백을 채워줄 수 있는 사상가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괴테와 니체이다. 당시 대도시로 성장하는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는 고뇌하는 한 철학자의 모습이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을 제시하려는 노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짐멜은 이 사상가들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을 시도한다. 새로운 ‘형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노력에서 짐멜이 ‘철학함’(Philosophieren)이라는 칸트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면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생존했을 때 스스로를 “공식적인 강단철학”의 주변인(周邊人, outside r)1)으로 생각했던 짐멜은 20세기 후반부터 학문적 논의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학자의 열정적인 번역과 연구결과가 잇달아 출판되면서 짐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 짐멜의 이미지는 강단철학의 한계를 벗어나 현실에 토대를 두며, 인접학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의 발굴과 ‘철학적 에세이’라 불리는 글쓰기 형식 등으로 매우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철학 분야에서 짐멜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산발적이다.3) 일반적으로 짐멜은 철학자보다는 사회학자로 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학자 김덕영 교수가 평가하듯 “짐멜의 근본은 사회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하지만 이 둘은 “주종관계나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지적 분업과 공동작업의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4) 더 나아가 경험적인 것과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것을 서로 화해시키고 그 사이에

- 1) Simmel an Crayen. Westend 7.3. 1910: Verlagarchiv de Gruyter, Berlin(K.C. Köhnke, *Der junge Simmel in Theoriebeziehungen und sozialen Bewegungen*, FfM, 1996, 21쪽에서 재인용).
- 2) 흥미로운 것은 영미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짐멜 사상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재구성이 시도되었던 반면 정작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짐멜 연구가 부진한 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덕영 교수를 중심으로 짐멜의 저술들이 일부 번역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 3) 짐멜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홍경자, 「짐멜의 비극적인 것」, 『해석학연구』, 제8집(2001), 홍경자, 짐멜과 야스퍼스의 삶과 정신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35집(2005), 이상엽, 짐멜과 카시어의 문화철학 비교 연구, 『철학논총』, 제50집(2007), 신웅철, 현대 문화와 돈 그리고 개인 : 짐멜(G. Simmel)의 『돈의 철학』에 나타난 문화와 돈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53집(2009), 신웅철, 「현대문화의 본질과 위기 그리고 인간-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17호(2009), 최성환, 닐타이와 짐멜의 삶의 개념과 이해 개념, 『철학탐구』, 제25집(2009) 등이 있다.
- 4)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07, 342쪽 아래.

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짐멜의 철학적 에토스이다.⁵⁾

이 논문은 짐멜의 칸트 철학의 해석과 수용을 다루고자한다. 특히 여기서는 짐멜이 1902/3 겨울학기 베를린 대학에서 행한 강의록 『칸트. 베를린대학에서 행한 16개의 강의』(이하 『칸트』로 약함)를 중심으로 짐멜의 칸트해석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⁶⁾ 그 이유는 먼저 이 강의가 다른 에세이 형식의 글과는 다르게 ‘순수 철학적 주제’, 즉 칸트 철학 전반에 관한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칸트의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주장과 문제점을 16개의 강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짐멜 사상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삶과 형식의 이원론은 칸트의 형식과 내용의 구분에서 비롯된다.⁷⁾ 베를린 강의 『칸트』의 인식론 부분에서 짐멜은 칸트의 형식 개념의 중요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칸트철학은 짐멜이 이른바 ‘양적 개인주의’에서 ‘질적 개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한다. 짐멜은 『칸트』의 마지막 강의에서 개인주의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근대 세계관 혹은 근대정신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규명하려는 짐멜에게 있어서 그 귀결점은 칸트이다. 그러나 짐멜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변화 속에서 점차 ‘양적 개체성’에 정향되어 있는 칸트 철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소위 ‘질적 개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형식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 사

5) M. Landmann, “Einleitung des Herausgebers”, in: G. Simmel, *Das individuelle Gesetz*, FfM, 1987, 7쪽 아래. 란트만은 짐멜 사상의 전개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1) 초기에 짐멜은 스펜스의 생물학주의에 기대고, 실용주의의 경향을 가진 실증주의자로 활동한다. 2) 『돈의 철학』(1900)에는 가치론적 숙고자, 『역사철학의 문제들』(1905)에서는 초월논리적 숙고자 등장하는데, 짐멜은 이 당시 시대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이었던 ‘역사이성비판’에 참여한다. 3) 마지막 시기에는 나중에 짐멜을 생철학 혹은 형이상학의 부활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전회가 이루어지는데, 베르그송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6) 이 강의록은 1904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1921년 5판까지 등장하였다.

7)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325쪽. “짐멜은 칸트의 인식론에 입각하여 사회학, 철학, 미학, 심리학 등과 같이 다양한 인식범주가 존재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짐멜은 철저한 칸트주의자이다.”

상가가 괴테와 니체이다. 당시 대도시로 성장하는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고뇌에 찬 철학자의 모습이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을 제시하려는 노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짐멜은 이 사상가들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을 시도한다.⁸⁾

2. 칸트 철학에 대한 짐멜의 ‘외적 관계’와 ‘내적 관계’

1) 현상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교수자격논문

짐멜의 학문적 여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희귀한 과국”(ein einziger Desater)으로 묘사될 수 있다.⁹⁾ 베를린 대학에서 역사, 민족심리학, 철학, 예술사 및 고대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던 짐멜은 다윈의 진화이론의 관점들을 민족심리학적 명제들과 매개하려는 시도를 담은 『음악의 시초에 대한 심리학적-인류학적 연구』¹⁰⁾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학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다. 심사교수인 켈러(E. Zeller)와 헬름홀츠(H. v. Helmholtz)는 짐멜에게 현상논문인 『칸트의 물리적 단자론에서 본 물질의 본성』(1880)을 박사논문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하였고 그의 논문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¹¹⁾ 흥미로운 것은 음악논문에 관한 심사평이다. 이 논문에는 나중에 그의 사회학과 철학의 동료들의 견제와 책망을 가져오는 짐멜 스타일의 근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출된 음악논문에 대한 켈러의 심사평에는 논문에서 다루는 물음들

8) 김덕영, 니체와 모더니티 이론: 짐멜과 베버의 해석과 수용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통권8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1, 88쪽 아래 참조

9) W. Jung, *Gerog Simmel, Zur Einführung*, Hamburg 1990, 13쪽.

10) 이 텍스트는 오희숙에 의해 심리학적 인류학적 음악연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음악사회학 원전 강독』(한독음악학회, 심설당, 2006)에 실려있다(79-123쪽).

11) K.C. Köhnke, 위의 책, 42쪽 아래 참조. 이 현상논문은 1879년 하름스(F. Harms)가 정식화한 주제, “물질의 본성에 대한 칸트의 상이한 견해들에 대한 서술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 “다소간 문제적인 가설에 의해서만 답해질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짐멜의 “모든 설명들이” “엄밀한 학문적 연구에 허용된 것보다” “더 경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박사학위 심사서에는 현상논문(칸트논문)에 대한 호평이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간접적으로 짐멜의 철학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¹²⁾ 그러나 당시 두 번째 심사교수였던 헬름홀츠의 심사평은 매우 논쟁적이었으며 짐멜의 음악논문을 평가 절하한다. 그는 현상논문에서 드러난 짐멜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지만, 음악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감각생리학(Physiologie der Sinne)의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³⁾ 이는 간접적으로 칸트철학에 편향되어 있었던 당시 베를린 대학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어려움이 그의 교수자격논문의 제출 과정에서 생겨난다. 짐멜의 시도를 한 번 거부한 다음, 대학은 칸트의 시공간 이론을 다룬 『칸트 연구』(1883)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쉐러와 딜타이(W. Dilthey)의 도움에 힘입어, 받아들인다. 쉐러는 또한 그의 심사평에서 짐멜이 칸트 저술들에 “대단히 정통하고”, “철학적 물음의 핵심으로 파고드는” “진지한 노력과 인정할만한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⁴⁾ 이에 반해 딜타이는 평가 없이 “수용함(Einverstanden)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¹⁵⁾

12) 같은 책, 54쪽 아래.

13) 같은 책, 56쪽 아래 참조. 이에 대해 W. Dilthey, “Das Wesen der Philosophie” (1907), in: ders., *Gesammelte Schriften*, Bd. 5, Leipzig 1924, 357쪽 아래. 칸트와 피히테의 영향아래 헬름홀츠는 철학을 “지식의 원천과 활동성에 대한 학설”로 이해하고 이 학설은 과학의 영역 안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런 입장에는 인식론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신칸트학파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 같은 책, 106쪽.

15) 같은 책, 110쪽.

2) 전공학문(Fachwissenschaft)으로서의 철학:

‘칸트문헌학’(Kantphilologie)과 ‘칸트학’(Kantwissenschaft)의 갈림길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현상논문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한 후(1880) 짐멜은 “칸트의 공간과 시간의 이념성에 대한 ‘정확하고’ 모든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술에서 유물론적 세계관이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점들을 부각시키고 명백히 하라”라는 주제로 내건 두 번째 현상논문(1881)에 도전했지만 실패한다. 이 실패가 아마도 전공학문으로서의 철학에 대해 짐멜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 결과는 이미 언급한 당시 독일 대학 철학과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당시 학문세계에 있어서 칸트철학의 위상과 직결된다. 몇 년 후 짐멜은 이 현상논문에 당첨된 라슈비츠(K. Laßwitz)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다. 이 논평에는 전공학문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그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되어 있다. “철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내했으며,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 더딘 회복기(Rekonvaleszenz)에서 올라서는, 완전한 경멸과 무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지위는 많은 부분 비교적(秘敎的, esoterisch)인 엄밀한 학문성과, 대체로 철학의 특징을 형성하는 대중적인(exoterisch) 폭 넓은 작용에 대한 요구가 결합된 혼탁한 혼합(물)에 책임이 있다. 단지 이로부터 철학자들의 불투명성과 난해함에 대한 불평과 조소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일반교양’(allgemeine Bildung)에 힘입어 철학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것을 수학과 화학으로부터는 요구하지 않는가? 우리들은 왜 이 학문(분야)들에게 전문가들에게만 이해되는 그들의 공식과 상징을 허용하는가? 철학이, 그 내재적 진행에서 전공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전공학문이라는 것이 파악되고 나서야 비로소 철학은 자신의 산출에서 지배했었고 지배하고 있는 무질서에서 확고한, 그 자체로 존립하는 분명한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¹⁶⁾ ‘엄밀한 학문성’과 ‘대중적인 폭 넓은 작용’

16) Georg Simmel: Eine neue Popularisierung Kants: in: *Das Magazin für die Literatur des In- und Auslandes* 52/1883(=103. Bd.), S. 216-217(=Nr.14 vom

이라는 요구를 부여받은 당시 철학의 상황은 짐멜이 “모든 과학적 작업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도달하여 현실의 물음과는 무관하게 ‘학자카스트의 음모’ 속에 이루어진 불임(不妊)의 ‘동종교배’를 양산한다는 문화비판과도 연관되어 있다.¹⁷⁾

위에서 언급한 짐멜의 논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논문에 탈락한 짐멜 논문에 대한 심사평을 참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 칸트적인 사고들이 단순히 재생산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루면서, 애정이 깊은 방식으로 그 사고의 모순들과 난제들로부터 벗겨졌다. 그러나 논자는 과제를 다루지 않았다(...)”¹⁸⁾ 결국 짐멜은 ‘모든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이라는 과제를 ‘칸트의 대중화’로 거부하고 칸트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한계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런 점들이 당시 주도적인 신칸트학과와 구별되는 짐멜의 입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¹⁹⁾ 당시 철학의 경향은 ‘과학성의 획득’과 ‘사회적 유용성의 상실’이라는 19세기 인문학의 일반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과학성을 획득하는 대가로 인문학은 “방향설정의 힘, 동기부여의 힘, 구속력있는 현존재의 의미로서 기능하는 역할을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²⁰⁾

짐멜 사상의 이해에 핵심적인 열쇠 중의 하나는 바로 칸트철학이다. 이른바 자기서술에는 ‘칸트학적 연구들’(die kantwissenschaftlichen Studien)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²¹⁾ 그는 먼저 칸트철학을 그 “근본신념”

14.4. 1883)(K.C. Köhnke, 위의 책, 100쪽 아래에서 재인용)

17) 게오르그 짐멜, 문화의 개념과 비극,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김덕영 외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52쪽.

18) Humboldt-Universität Archiv, Berlin(HUA), Phil. Fak.; Akte Nr. 1212, Bl. 77(K.C. Köhnke, 위의 책, 98쪽에서 재인용)(강조는 필자의 것임).

19) 신칸트학과와 짐멜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가치론, 『독일 어문화권연구』 제15집 (2006년),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73쪽 아래 참조.

20) G. Schotz, Zwischen Wissenschaftsanspruch und Orientierungsbedürfnis, FfM 1991, 53쪽 참조(최성환, 서양 분과학문 속의 인문학의 전개과정 -1800년대의 상황, 『인문정신과 인문학』, 『지식의 지평』 제2호, 한국학술협회의 편, 2007, 110쪽 아래에서 재인용).

(Grundgesinnung)으로 환원하고 “그의 철학적 업적을 그 보편적 동기들에서 서술”함으로써 근대 세계관의 형성에서 칸트 철학의 위상을 분명히 규명하려고 한다.²²⁾ 그 다음 그는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에 있어서 칸트 철학의 유의미성과 한계를 고찰하려고 시도한다.

신문기고문의 제목이기도 한 “칸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Was ist uns Kant?)라는 물음은 짐멜에게 있어서 칸트의 철학 자체, 신칸트학파의 경향²³⁾, 당시 학계의 풍토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모두 나타내는 함축적 표현이다. 그러나 짐멜은 신칸트학파에서 나타나고 있는 ‘칸트철학의 대중화’를 ‘칸트문헌학’이라 비판하면서 진정한 ‘칸트학’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칸트학’은 칸트철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실에 적용가능한 현재성을 규명하고 철학함의 단초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짐멜의 태도는 칸트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 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²⁴⁾ 주지하듯이 칸트의 내용과 형식의 이원론에서 짐멜의 삶과 형식의 이원론이 비롯되며, 칸트 인식론은 삶 혹은 문화에 대한 ‘인식근거’를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이다. 또한 짐멜에게 칸트 철학은 ‘양적 개인주의’에서 ‘질적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이행을 위한 발판이다. 새로운 개인주의는 짐멜의 상호작용이라는 근본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양적 개인주의의 존립없이는 성립될 수 없으

-
- 21) G. Smmel, “Anfang einer unvollendeten Selbstdarstellung”, in: K. Gassen u. M. Landmann(Hg.), *Buch des Dankes an Georg Simmel, Briefe, Erinnerungen, Bibliographie. Zu seinem 100. Geburtstag am 1. März 1958*, Berlin, 1958, 9쪽.
 - 22) G. Simmel, “Was ist uns Kant?”, in: ders., *Gesamtausgabe*, Bd., 5, FfM, 1992, 146쪽 아래
 - 23) 최성환, 서양 분과학문 속의 인문학의 전개과정 -1800년대의 상황], 『인문정신과 인문학』(『지식의 지평』 제2호(2007), 한국학술협의회 편, 103쪽 아래 참조. 우리가 신칸트학파의 시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비단 짐멜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부의 철학자들은 자연과학과의 대결에서 철학의 존립가능성을 칸트의 인식론에 기초한 가치철학, 문화철학 등에서 찾았다.
 - 24) K. C. Köhnke, 위의 책, 102쪽 참조. ‘칸트문헌학’이라는 표현은 B. Erdmann의 *Reflexion Kants zur kritischen Philosophie*에 대한 서평(1885)에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칸트』 강의를, 14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며, 그런 배경에서 칸트철학은 짐멜에게 ‘지평’이자 동시에 ‘한계’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은 짐멜이 학위논문으로 대체된 현상논문과 교수자격논문을 모두 칸트철학을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이 두 인물 간의 연관성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지만, 두 논문이 모두 과정통과를 위한 ‘형식성’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면 단순히 외면적 관계에서 내적 연관성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의무적인 “학술적 규정연기”(akademische Pflichtübungen) 정도로 두 논문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칸트에 대한 짐멜의 솔직한 견해는 그의 학위 논문과 교수자격논문이 아니라 강의록 『칸트』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단편에서 확인될 수 있다.²⁵⁾ 다양한 강의 주제이외에²⁶⁾ 짐멜은 칸트, 괴테,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에 관한 비교연구 혹은 단독 연구들을 여러 편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들에 나타난 짐멜의 의도는 칸트에서 그 절정을 경험하는 근대정신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경향들을 분명히 파악하여 그 타당성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 놓여있다.²⁷⁾

3. 베를린 강의록 『칸트』의 기본 구조, 목표 그리고 의의

1883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시되었으며, 완결된 형태의 칸트 철학에 대한 포괄적 소개를 담고 있는 베를린 강의록 『칸트』는 짐멜의 신문 기고문인 「칸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5) W. Jung, 위의 책, 31쪽. 「칸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1896), 「칸트의 의무와 도덕 이론」(1903), 「칸트와 근대미학」(1903), 「칸트와 개인주의」(1904), 『칸트. 베를린대학에서 행한 16개의 강의』(1904) 등이 있다.

26) 같은 책, 15쪽. 짐멜은 사강사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했으며 그의 다양한 관심은 점차 그를 칸트 철학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였다. 그의 강의주제는 사회심리학적이며, 민족심리학적인 주제, 현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점들, 논리적, 윤리적 그리고 미학적, 마찬가지로 역사철학적 대상이 포진되어있다. 「윤리학의 근본특징들」은 짐멜에게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관계에서의, 가장 최신의 철학이론들, 처럼, 그리고 사회과학들의 문제들」은 심리학의 주요학설들, 처럼 친숙한 것이었다. 그리고 칸트와 쇼펜하우어는 레퍼토리에 속했다.

27) 자세한 자료는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240쪽 아래 참조

(Was ist uns Kant?)(1896)와 함께 칸트 철학에 대한 짐멜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강의록은 전체로서의 칸트 세계관의 특징과,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칸트 철학의 관계를 다룬 2개의 강의, 칸트의 인식론을 다룬 5개의 강의, 칸트의 윤리학을 다룬 7개의 강의, 미에 대한 칸트의 이해를 담은 1개의 강의 그리고 “새로운 개인주의”와 연관해서 칸트적인 사유 유형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시도를 담은 1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 강의들은 모든 학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철학사의 한 흐름으로서 칸트 철학에 대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 일반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짐멜은 이 강의의 의도가 “철학사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철학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칸트의 문제와 해결책들을 이른바 “철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die Lebensfragen der Philosophie)에서 측정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을 “칸트 철학의 강단개념을 그것의 세계개념을 통해 해석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바꾸어 표현하면 칸트철학이 얼마나 새로운 시대의 실제적인 현실과 문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짐멜의 과제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세계상의 건립에 있어서 칸트의 학문적이며 부분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이론들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다.²⁸⁾ 여기서 우리는 짐멜이 이미 칸트 철학에서 다른 지적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1) 칸트 철학에 대한 짐멜의 해석원칙

짐멜은 철학의 주제들에 대한 모든 학설들이 “오늘의 진리를 내일의 오류로 만드는 역사적 과정”의 지배하에 놓여 있지만, “이런 주장에는 어떤 인간적 존재방식, 즉 세계와 삶의 전체에 대해 답하려는 전체로서의 정신의 가능성(eine Möglichkeit des Geistes als ganzen)이 표현되는

28) G. Simmel, *Kant. Sechzehn Vorlesungen gehalten an der Berliner Universität*, in: ders., *Gesamtausgabe*, Bd., 9, FfM, 1997, 9쪽(이하 『칸트』로 약함).

29) 『칸트』, 225쪽 아래 참조.

데, 이것은 결코 역사적 진화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³⁰⁾ 이런 배경에서 짐멜이 칸트 철학을 소개하면서 제시하는 ‘기본적 해석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나는 칸트가 현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그와, 그의 영향을 규정하는 모든 과거와 현재에 대항하여 **무시간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요소는, 역사적 순간에서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 단지 인간성의 이미 마련된 특징과 유형을 가지적으로 만드는, 우연적으로 타오르는 불빛과 비슷한 그런 물음들과 대답들이다.”³¹⁾ 또한 짐멜은 칸트의 의도를 벗어난 그의 철학에 대한 대중적 해석에 대한 교정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해석학적으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짐멜이 “철학자의 영혼”과 “철학하는 인간의 역사적·심리학적 현실”을 엄격히 서로 구분하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창조적 개성”은 “실제적인 역사적 인간”이 아니라 “그 개성의 부분들의 사태적인, 즉 내적인 연관성을 위한 표현 혹은 상징으로서 단지 업적 자체에서만 생동적인 이념적 형성체”이다. 이런 배경에서 짐멜은 한 철학자의 외적 삶의 경과에 대한 해설을 거부한다.³²⁾

2) 칸트 철학의 일반적 특징: ‘주지주의’(Intellektualismus)

짐멜이 파악하는 칸트 철학의 토대는 ‘주지주의’이다. 그는 칸트 철학 함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지주의의 독특한 특성을 부각시키며, “그의 학설의 내용으로부터 밝혀지는 것은 사고에 있어서 타당한 규범이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³³⁾ 그에 반해 감정과 의지는 칸트에 의해 유한한 정신의 요소로 인식되어지며, 그것들의 가치와 유용성은 단지 논리적 일관성의 조건에 그들이 적합한가에 달려있다고 평가된다. 비판철학은 아마도 사변의 작업

30) 『칸트』, 12쪽.

31) 『칸트』, 12쪽 아래(강조는 필자의 것임).

32) 『칸트』, 13쪽.

33) 『칸트』, 15쪽.

을 게임 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실행하는 시도들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사례를 나타낸다. 짐멜에 따르면 칸트는 결코 경험에서의 이성의 최고의 지위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며, 이성 자신에게 내맡긴 문제들이, 비록 보통의 지성이 너무 쉽사리 범하는 범주의 초월적 사용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성에 의하여 해결책을 가져야만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³⁴⁾

‘실천이성의 우위’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일견 칸트 체계에서 생동적인 사고의 방향이 그의 중심적 관심을 사고(Denken)가 아니라 의욕(Wollen)에로 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사고가 아니라 실천적 행위를 위해 현존재에 대한 사유에 충실한(gedankenmäßige) 작업이 수행되어졌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근본 경향”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짐멜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단언한다.³⁵⁾ 그는 “개념적·논리적 사유능력(Geistigkeit)의 가장 극단적이며 가장 세련된 승리는 이 사유능력이 도덕적 의지 홀로에게 인간의 가치에 대해 결정하게 하고, 그러나 그 다음 의욕의 도덕성을 논리적 규범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한다.³⁶⁾ 결국 짐멜이 보기에 칸트의 목적은 “사고에 있어서 타당한 규칙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³⁷⁾이다. 이런 배경에서 짐멜은 칸트 철학은 “오성에서 비롯된, 당연히 초기 합리론의 것보다 더 완결된 오성에서 비롯된 철학”³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의 도덕의 빈틈없는 엄격성은 전체 삶에게 수학적 정확성의 형식을 강요하려는 논리적 열광(Fanatismus)에서 비롯된다”³⁹⁾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멜은 칸트 인식론의 영역조건(Rahmenbedingungen)

34) G. Dawes Hicks, “Review of Kant”, in: *Georg Simmel. Critical Assessments* (Edt. D. Frisby), Vol. I, London/ New York, 1994, 167쪽 아래.

35) 『칸트』, 15쪽.

36) 『칸트』, 16쪽.

37) 『칸트』, 15쪽.

38) 『칸트』, 같은 곳.

39) 『칸트』, 16쪽.

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오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칸트』의 처음 두 강의에서 짐멜은 합리론과 경험론, 그리고 이들과 칸트 비판철학과의 관계를 세밀한 분석을 통해 조명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짐멜은 공간의 형식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다루면서 헬름홀츠에 대해서 매우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다. 짐멜에 따르면 그 안에서 유클리드 공리가 지배하지 않는 공간들을 모순없이 표상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칸트에 의해 주장된 유클리드 공리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전한 오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칸트의 선형성은 단지 경험 가능한 세계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떠한 논리적이고 절대적인 타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지각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만 타당한 것을 의미한다.”⁴⁰⁾ 유사하게 짐멜은 인과율도 반성적 사고의 개념적이며 의식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들의 모든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간주하고, 바로 이것이 “칸트 관념론의 핵심”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⁴¹⁾ “이 자아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기능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식 가능한 세계를 지탱하는 기능은 스스로 어떤 담지자를 가지지 않는다. 자아는 자신의 실행에서 나타나며, 그것은 단순한 활동성이다. 자아와 자아가 살아가는 세계는, 세계가 자아에 있는 것처럼, 안정된 실체라는 의미에서 존재를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의 생성, 끊임없는 형성, 변형, 자기전개이다.”⁴²⁾

40) 『칸트』, 32쪽과 Walter G. Everett, “Review of Kant”, in: *Georg Simmel. Critical Assessments*(Edt. D. Frisby), Vol. I, London/ New york, 1994, 164쪽 참조

41) 『칸트』, 76쪽

42) 『칸트』, 73쪽 아래.

4. 인식론의 문제: 근대사상의 근본적 ‘형식’으로서의 칸트 인식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칸트 철학은 짐멜 시대에 철학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간주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칸트의 인식론이 자리하고 있다. 칸트에 대한 짐멜의 태도가 양가적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칸트의 인식론이다. 짐멜은 아마도 ‘정서적으로’ 칸트와 잘 부합하지 않는 사고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철학적으로 짐멜의 시각은 이미 박사논문 제출 이전부터 칸트를 떠나 다른 세계로, 궁극적으로 괴테와 니체의 사유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는 대도시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현상이 그의 관심을 자극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철학적 주제와 관심은 순수철학적 문제 의식이라기보다는 구체적 삶의 세계에서 철학적 과제를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짐멜의 관심이 완전히 칸트 철학의 인식론적 관점을 떠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철학은 인간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의 논리적 전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⁴³⁾ 바로 여기서 그는 칸트의 형식과 내용의 구분이라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Dichotomie)를 수용하게 된다.

칸트 인식론의 핵심을 짐멜은 『철학의 주요 문제들』(1910)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포착한다. “(...) 칸트적 성찰의 선회점은 형식개념에 있다. 세계질료를 하나의 세계로 형성하는 몇몇의 형식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다양한 내용들의 무한성에 제공된다.”⁴⁴⁾ 짐멜은 적어도 학문적 의미

43) 김덕영, 양적 개인주의와 질적 개인주의의 종합」(해제), 게오르그 짐멜, 『근대 세계관의 역사. 칸트·괴테·니체』, 도서출판 길, 2007, 161쪽. 짐멜의 사회학이 ‘형식사회학’이라 불리는 이유는 사회학의 과제는 “개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 또는 사회화의 내용(Inhalt)이 아니라 형식(Form)”이라는 짐멜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바로 칸트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

44) G. Simmel, *Hauptprobleme der Philosophie*, in: ders., *Gesamtausgabe* Bd. 14, FfM 1996, 24쪽.

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식내용이 정신의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짐멜은 형식과 내용의 분리는, 존재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조직과 관절”(Organisationen und Gelenkigkeiten)로서 모든 사유 영역에 타당한,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⁴⁵⁾ 짐멜은 문장의 구성을 예로 들면서 그 자체로 의미를 담지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즉 문장의 ‘형식적’ 통일성에서 문장의 의미를 형성하듯이 형식은 바로 개별적 질료의 무의미성과 혼돈을 극복한 “질료의 통일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⁴⁶⁾ 따라서 형식과 내용의 분리라는 칸트의 모델은 짐멜에게 단순히 사회학의 인식 대상을 설정하는 데 국한하지 않는다. 당시 지배적인 역사주의에 반하여 “형성하는 생산력(formende Produktivität)인 인간정신의 자유를, 자연에 대하여 칸트가 택한 **똑같은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을 자신이 추구하는 “탐구의 특수성이 자리매김되는 보편적 경향”으로 규정한다.⁴⁷⁾ 칸트의 모델을 철학, 역사, 문화, 예술, 사회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인식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짐멜의 기본 구상이다.⁴⁸⁾

45) 같은 책, 19쪽 아래.

46) 『칸트』, 63쪽.

47) G. Simmel, *Die Probleme der Geschichtsphilosophie. Eine erkenntnistheoretische Studie*, in: ders., *Gesamtausgabe*, Bd. 9, FfM, 1997, 231쪽.

48) Bevers M. Antonius, *Dynamik der Formen bei Georg Simmel. Ein Studie über die Methode und theoretische Einheit eines Gesamtwerkes*, Berlin, 1985, 49쪽 참조(김태원, 『짐멜의 사회학』, 한국학술정보, 2007, 44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짐멜은 인식과정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칸트와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선형적 인식에 있어서 순수한 이성의 활동성이 과대평가된 칸트의 합리주의에 반해 짐멜은 의식과 정신, 존재와 체험에 의해 파생된 전체성을 제안한다. 짐멜에게는 칸트의 초월적이며 논리적인 선형론보다 경험심리학적인 선형론이 더 우선한다. 그는 인식이란 특정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의 전체성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리적, 이성적 사유보다 더 근원적인 삶의 경험에서 인식의 내용을 해명하려고 노력한다.

5. 도덕철학의 문제

칸트 인식론에서 짐멜은 자신의 사회학, 문화철학 그리고 생철학을 위한 해석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한적인 반면, 칸트의 윤리학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칸트 철학을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게 그 강단개념과 세계개념의 관계에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려고 한다. 특히 윤리학에 대한 비판은 『칸트』의 제16강에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개인주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 배경에서 짐멜은 행위의 엄격한 ‘보편적 법칙’(정언명법)을 정식화하려는 칸트 시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현대적 삶에서 “개별적 법칙”(das individuelle Gesetz)이라 불러야만 하는 것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현존의 내적이며 외적인 형태화(die innere und äußere Gestaltung des Daseins)는 동기부여의 칸트적인 자유, 즉 자신의 고유한 양심에 대한 가차없는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형태화는 이 자유에 의해 수행된 행위가 타자와의 평등을 통해서, 즉 그 타당함의 보편성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주장한다.⁴⁹⁾

짐멜은 “모두에게 타당한 법칙을 인격적 자유의 내용으로 증명하려는 칸트의 거창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18세기의 사회적 낙관주의와 양적 개인주의에서 유래하는 “시험되지 않는 도그마에 기인한다”고 비판한다. 짐멜에 따르면 19세기의 특정한 흐름이 보편타당성이 아니라 개별적인 형태화에서 인격의 가치들을 형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⁵⁰⁾ “그 본성에 따라 그러한 존재로서 개인들에게 타당한 법칙이라는 개념은, 칸트에 있어서는 형용의 모순이지만, 적어도 19세기가 18세기의 가치들과 나란히 정립했던 가치들의 하나를 위한 표현이며, 그것을 넘어서, 사회의

49) 『칸트』, 143쪽. ‘개인 법칙’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짐멜의 ‘개별적 법칙’과 칸트 윤리학의 ‘정언명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홍경자, 「짐멜과 아스퍼스에서의 삶과 정신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35호(2005), 13쪽 아래 참조.

50) 『칸트』, 143쪽.

관점으로부터, 하나의 다른 최종 목표처럼 보인다. [그 목표란] 결과는 아니라고 하지만 (...) 보편적 법칙성의 요구를 위한 전제인 평등의 자리에 개별적인 특성들(Wesenheiten)의 상호적인 보충[이다].”⁵¹⁾ 칸트의 시대정신과 짐멜의 시대정신이 분명 다르다고 한다면 칸트에 대한 짐멜의 비판은 칸트 철학 자체보다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그 형식성을 고집하려는 신칸트학파에 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적 개인주의와 질적 개인주의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를 “결코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은 단지 나란히 존속한다”는 방식에서 정립된다.⁵²⁾

주지하다시피 칸트 윤리학에 행복의 관념이 등장했을 때 다양한 단계의 논쟁이 유발되었다. 짐멜에 따르면 칸트 윤리학에 대한 대중적 해석의 오류는 칸트가 하나의 행위가 도덕적이면서도 동시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관점, 즉 ‘도덕과 행복의 양립불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짐멜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주지주의적 칸트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윤리학에서도 칸트의 문제의식은 실천의 관심이 되기보다는 인식의 관심이며, 따라서 행복과 도덕의 범주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은 실천적 행위에서 비롯된 구분이 아니라고 한다.⁵³⁾ 그러므로 하나의 주어진 행위의 동기부여에 행복에 대한 요구가 현존할 때에, 우리는 행위가 행복을 위해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의무를 위해서 행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짐멜은 다시금 칸트의 윤리적 엄숙주의의 뿌리가 주지주의라는 것을 암시한다.⁵⁴⁾

51) 『칸트』, 143쪽 아래.

52) 『칸트』, 226쪽.

53) 『칸트』, 139쪽 참조. 짐멜은 “윤리적인 것의 칸트적 해석의 전적인 독자성은, 그것의 성취, 마찬가지로 그것의 실패에서” “하나의 중심점, 즉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산정은 전적으로 연속적인 실천적 삶과, 이 삶을 여전히 동일한 단절되지 않은 흐름에서 관통하는, 도덕적 의미를 개별적인, 삶의 연속성으로부터 분리된 의지의 행위로 분리되는데 기초하고 있다.”

54) 『칸트』, 148쪽 아래 참조.

짐멜은 칸트 윤리학의 본질적 한계가 모든 동기들을 “도덕성 혹은 이기주의적인 행복”⁵⁵⁾ 혹은 “행복 혹은 의무”⁵⁶⁾라는 양자택일로 환원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양자택일의 관점은 인간행위를 이기적 행위와 이타적 행위로 구분하는 현대윤리학과 똑같은 오류를 저지른다고 비판한다.⁵⁷⁾ 짐멜에 따르면 칸트 사고의 ‘순수한 합리주의적 경향’은 “우리의 행위에서 자신의 긴장된 활력을 작동시키며, 그 과정에서 전혀 중요시하지 않거나 혹은 단지 부차적으로 그것들에 의해 규정된 행위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더 저급한, 마찬가지로 더 높은 질서의 욕구(Triebe)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⁵⁸⁾ 칸트는 “행복감(Glücksgefühle)의 엄청난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차이를 배척함으로써 “하나의 아주 추상적인 행복 개념”을 형성한다.⁵⁹⁾ 반면 짐멜은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하게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도덕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함이 없이 순수하게 행복의 관심에 머물면서, 그러나 하나가, 순수하게 행복으로서, 다른 것보다 더 가치있으며, 질적인 결핍이 충족되었다는 느낌에서, 더 작은 쾌락을 더 많은 쾌락보다 우선시한다.”⁶⁰⁾ 이러한 짐멜의 관점은 쾌락의 성질에 대한 공리주의, 특히 밀(J. S. Mill)의 입장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⁶¹⁾

칸트의 자유론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물자체에 대한 짐멜의 해석의 의존하고 있다. 물자체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경계개념”(Grenzbegriff)이다.⁶²⁾ “자유는 물자체 일반과 같이, 순수하게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유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인식불가능성에서 인과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⁶³⁾ 그것은 거부, 즉 다른 것을

55) 『칸트』, 153쪽.

56) 『칸트』, 154쪽.

57) 『칸트』, 154쪽.

58) 『칸트』, 155쪽.

59) 『칸트』, 157쪽.

60) 『칸트』, 157쪽.

61) Walter G. Everett, “Review of Kant”, 165쪽.

62) 『칸트』, 182쪽.

선택하는 힘으로 해석되어진 의지의 자유와 함께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⁶⁴⁾ 그러나 짐멜은 물자체의 경우에서 발견되어진 것과 똑같은 애매성과 이중적 의미가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따라다닌다고 지적한다. 결국 의지의 기능적 작용이 우리의 고유한 존재의 실체적 물자체로 변화되며, 그리고 우리의 감각들이 수동적 혹은 생산된 것으로 의식에 나타나도록 하는 감각의 기능적 성질이 그것의 원인으로 실체적인 물자체를 가리키게 되면, 똑같은 오류가 생겨난다는 것이다.⁶⁵⁾ 짐멜은 자유란 “단지 평가의 준칙, 즉 그것 없이는 선과 악에 대한 실천적으로 요구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보조개념(Hilfsbegriff)”⁶⁶⁾으로 정의하다.

그럼에도 짐멜은 자유 개념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자유는 그 실제적 의미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법칙에 대한 복종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이외의 행위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규제적인 이념들처럼 가치를 가지는데, 이 이념들이 “우리를 공허한 관념론에서 뿐만 아니라 체념적 자연주의로부터 구출한다.” 결국 인간들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현실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모색할 때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유(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념들이, 마치 절대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절대적인 규범들이 타당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탐구하도록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이념들이 절대자와 초월자의 모든 가치를 상대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의미, 정돈자(Ordner) 그리고 이정표이고자 하는 그의 기능 안으로 구출한다.”⁶⁷⁾

63) 『칸트』, 184쪽.

64) 『칸트』, 184쪽.

65) 『칸트』, 192쪽 아래와 Walter g. Everett, 위의 논문, 165쪽 아래 참조.

66) 『칸트』, 192쪽..

67) 『칸트』, 196쪽 아래.

6. 미학적 근본 신념의 문제

짐멜은 『판단력 비판』에 평가는 기본적으로 인식론과 도덕철학에 대한 평가와 케를 같이 한다. 그에 따르면 『판단력 비판』에도 여전히 “현존의 영역을 그것을 수용하거나 야기한 정신적 에너지 아래에서 구분하는 칸트의 근본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짐멜은 칸트의 미학적 근본신념들이 “미적 대상들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짐멜에 따르면 미적 대상들은 “미적인 것의 개념을 감각적인 쾌적함(des sinnlichen Angenehmen), 참된 것(des Wahren) 그리고 도덕적 선함(des sittlichen Guten)의 개념들로부터 완전한 엄밀성과 더불어 구분하려는 학문적인 오성적 사유에 근거한 [칸트의] 욕구를 통해 단지 간접적으로 확보”되며, 이것을 “정신사의 가장 고유한 경험들”이라고 규정한다.⁶⁸⁾ 그럼에도 칸트의 시도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근대 인간의 개인적 주관성과, 그가 마찬가지로 필요로 했던 초개인적 공동성을 미적 영역에서 화해시키려는 최초이자 가장 심오한 시도”라고 평가한다.⁶⁹⁾

판단력 비판에 대한 짐멜의 평가가 칸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에 대한 결산과 연결된다는 것은 1)칸트적 관점에서나 2)새롭게 등장하는 ‘미학적 시대정신’의 견지에서나, 3)짐멜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생철학적 관점에서나 모두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귀결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야기한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짐멜은 “칸트가 제시할 수 있었던 과학적 해결은 조정을 필요”로 했으며” 그 대안이 당시의 미학적 관심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⁷⁰⁾, 궁극적으로 그는 베르그송의 영향 아래 이러한 모든

68) 『칸트』, 210쪽.

69) 『칸트』, 213쪽.

70) 게오르그 짐멜, 칸트와 괴테, 『근대 세계관의 역사. 칸트·괴테·니체』(김덕영 외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22쪽 아래 참조. “19세기 초반에 형성된 사변적 관념론의 세계관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1850년대와 1860년대의 유흘론이었

구분들이 ‘삶’에 의해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했다.⁷¹⁾

이러한 생철학적 관점을 짐멜의 「문화형식의 변동」의 한 구절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칸트의 위대한 해법은 문제가 출발하는 실제의 내적 행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사유 가능성으로 보인다. 칸트는 필연성과 자유를 상이한 두 존재의 지층에 배분함으로써, 즉 필연성은 경험 가능한 현상에, 자유는 인식 불가능한 우리 존재 자체에 묶으로써 우리의 주체를 둘러싼 이 둘 사이의 경쟁을 제거한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진전된 주체의 절단에 대해 주체 자신도 문제가 나타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⁷²⁾ 짐멜은 현상으로서의 자아와 물 자체로서의 자아라는 이원론은 근본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삶을 “피결정성으로도 자유로도 진정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의 통일적 존재”로 고찰한다.⁷³⁾ “삶은 통일적 존재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갈등을 개별부분으로 분리하여 해결할 수가 없다. 칸트의 논리적·개념적 관심에서는 자유와 필연성의 개념이 그것을 낳는 삶보다 오히려 일차적인 문제소재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럼없이 삶을 이분화해 개념 간의 모순을 화해시켰다. 그러나 (...) 빈틈없이 접합된 개념은 금이 갔고, 바로 그 파손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나 예감-아직은 그 이상이 아닌-이 치솟아 올라온다. 즉 우리 의지의 본질형식은 필연성과 자유를 초월하는 어떤 것으로서 양자택일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제삼자이다.”⁷⁴⁾

다. 대립적인 양자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에 대한 요구는 1870년대 ‘칸트에게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이어졌다. 그러나 칸트가 제공할 수 있었던 과학적 해결은 조정을 필요로 했다. 미학적 관심이 거기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듯했다. 미학적 관심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에 광범위하게 정신적 삶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작금에 독일 정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1) 짐멜과 베르그송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태원, 『문화에 이르는 길-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한국사회학』, 33집(겨울호, 1999), 898쪽 아래 참조.

72) 게오르그 짐멜, 『문화형식의 변동』,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138쪽.

73) 같은 책, 같은 곳.

74) 같은 책, 138쪽 아래.

일반적으로 필연성과 자유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판단력비판』은 칸트와 괴테의 차이와 공통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괴테가 칸트의 『판단력비판』에 열광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짐멜은 이 두 큰 정신은 일견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근대 세계관을 구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미래에서 서로를 보충하면서 근원적 세계이해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이제 막 종료된 정신적 시기의 세계관을 당파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표현수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연결되어 있다. 칸트냐 아니면 괴테냐! 그러나 도래하는 시기는 아마 칸트 그리고 괴테라는 공식에 의해 표현될 것이다. 그들 사이의 어떤 무미건조한 중재도 거절하면서, 그들의 개념적 대립을 ‘화해시키지’ 않으면서, 하지만 체험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의 대립을 부정하면서 말이다.”⁷⁵⁾

짐멜은 칸트 철학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로 근대와 근대인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분화와 경계설정, 그리고 거리를 체계적으로 개념화시키고 이론화시켰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괴테는 ‘통일’, ‘균형’, 그리고 ‘회합’의 관점을 예술적 차원에서 제시한 사상가이다. “만일 우리가 이 두 위대한 정신의 내적 운동의 리듬을 그들의 최종 목표에 따라 규정해도 좋다면 (...) 칸트의 본질적 공식은 경계설정(Grenzsetzung)이며, 괴테의 본질적 공식은 통일성(Einheit)이다.”⁷⁶⁾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과 오성의 경계를 설정하고, 오성과 이성의 경계를 설정하며, 이성과 행복 추구의 경계를 설정하고, 개별성과 보편타당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⁷⁷⁾ 그러나 예술가로서 괴테는 “현상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예술가 역시 우선은 서로 뒤섞여 혼란하게 만드는 사물의 특성, 활동과 의미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하지만, 그의 내적 운동은 일단 다시 획득된 통일성에서 멈춘다.”⁷⁸⁾ 스스로 고백하듯

75) G. Simmel, “Kant und Goethe”, in: ders., *Gesamtausgabe* Bd. 10, FfM, 1995, 166쪽.

76) 같은 책, 138쪽.

77) 같은 책, 138쪽 아래.

“분리하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괴테의 “본성에 존재하지 않는다.”⁷⁹⁾

7. 현대의 정신적 상황과 개인주의 문제: 양적 개인주의와 질적 개인주의의 변증법

짐멜은 『칸트』의 마지막 강의에서 “근대의 원리적인 삶의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개별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규정한다.⁸⁰⁾ 그러므로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주의도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일종의 연속성을 가지며 시대에 상응하는 혹은 요청되는 형태를 창출해나간다. 먼저 칸트와 피히테에 의해 정점에 도달하는 계몽적 합리주의가 18세기 “개별성의 개인주의”(der Individualismus der Einzelheit)⁸¹⁾라 불리는 ‘양적 개인주의’의 창시자이며 옹호자로 등장한다.⁸²⁾ 사회적 환경에 위치하면서 사회적 집단이나 영역의 교차점이나 결절점으로 존재하고 행위하는 개인을 가리켜 양적 개인, 그리고 이러한 양적 개인에 귀속되는 자유와 자기 책임을 양적 개체성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양적 개인과 양적 개체성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세계관을 양적 개인주의라고 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내적으로 자족적인 또는 외적으로 배타적인 개인을 질적 개인, 그리고 이러한 질적 개인의 특이한 존재와 삶의 방식을 가리켜 질적 개체성이라고 한다.⁸³⁾ “유일성의 개인주의”(der Individualismus der Einzigartigkeit)⁸⁴⁾라 불리는 질적 개인주의는 질적 개인과 질적 개체성의 세계관이다. 괴테에 의해 ‘예술적’ 기초가, 슐라이어마허에 의해 ‘형이상학적’ 기초 그리고 질

78) 같은 책, 139쪽.

79) 같은 책, 139쪽.

80) 『칸트』, 215쪽.

81) 『칸트』, 215쪽.

82) 『칸트』, 226쪽.

83)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223쪽 아래 참조.

84) 『칸트』, 226쪽.

적 개인주의의 ‘가장 광범위한 전과경로’인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이 의식의 ‘감정’, 즉 ‘체험’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니체에 이르러서야 19세기 질적 개인주의가 그 절정을 경험한다.⁸⁵⁾ 이들은 개인의 비교 불가능성과 혼동 불가능성, 그리고 교체불가능성을 근거지우고, 개인의 유일성을 발달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을 지상의 윤리적 과제로 설정하였다.⁸⁶⁾ 그러나 짐멜은 “괴테, 슈라이어마허, 낭만주의자에 의해 19세기에 발생한 개별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표상”이 양적 개인주의를 “단순히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혹은 경쟁하는 것으로” 같이 병존한다고 분명히 밝힌다.⁸⁷⁾ 또한 짐멜은 “현대 문화의 흐름”에서 한편으로는 “수평화, 평등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것까지도(서로 아주 이질적인 것까지도) 동일한 조건 아래 결합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영역을 창출하는 방향”과, 다른 한편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성취하고 개인의 독립성 및 인격 형성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방향”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⁸⁸⁾

질적 개인주의에 대한 짐멜의 정당화와 옹호는 단순히 시대정신의 반영이 아니라 위기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본격화된 ‘노동분업’, 객관문화의 지배에 의한 문화의 위기 등과 같은 시대적 상황은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과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그는 질적 개인주의 그 자체로만으로 현대 사회가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그는 양적 개인주의와 질적 개인주의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종합, “창조적 결합”을 기대한 것이다.⁸⁹⁾ 이런 배경에서 짐멜은 『칸트』 강의에서 칸트적 세계관인 양적 개인주의

85) 짐멜과 니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덕영, 「니체와 모더니티 이론: 짐멜과 베버의 해석과 수용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통권84호(200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77쪽 아래.

86)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237-253쪽 참조.

87) 『칸트』, 224쪽.

88) 게오르크 짐멜, 현대 문화에서의 돈,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김덕영 외 옮김), 2005, 18쪽.

89)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253쪽 참조

와, 괴테와 니체에 의해 대변되는 세계관인 질적 개인주의가 결코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거나 경쟁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밝힌다.⁹⁰⁾ 이로써 또한 칸트 철학에 대한 짐멜의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8. 나오면서: 짐멜의 유산과 적용

짐멜의 칸트해석은 매우 균형잡힌 관점을 제공해준다. 물론 칸트를 넘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칸트의 ‘철학함’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다. 그에 따르면 “칸트는 그것의 이미지가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스스로 변하는 아주 위대한 정신들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이 정신들이 발전에 지속적으로 삼입되어 머물며, 그리고 그런 연유로 소위 항상 상이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명백성”보다도 “그들의 가변성”으로부터 세계사적인 작용이 야기된다고 짐멜은 진단한다.⁹¹⁾ 그러므로 짐멜은 칸트철학에 대한 ‘일방적 거부’가 아니라 어떤 철학적 주장을 그 적용에 있어서 새롭게 제기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대한 적실성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방적 수용’을 비판한다. 그가 칸트를 얼마나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그가 지향하는 괴테 그리고 니체와 칸트의 비교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짐멜은 칸트 철학이라는 ‘사유의 형식’이 더 이상 새롭게 등장한 현실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형식을 찾아 나선 것이다. 따라서 양적 개인주의에서 질적 개인주의로의 전회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자유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질적 개인주의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물론 다르게 답해질

90) 『칸트』, 221, 224, 226쪽.

91) 『칸트』, 226쪽

수 있다. 짐멜이 문화의 위기를 초래하는 노동분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존 러스킨(J. Ruskin)의 예술론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듯이 이러한 시각은 때로 소박하다.⁹²⁾ 비록 질적 개인주의가 양적 개인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고유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사회의 실질적 지향점이 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특정한 고착된 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을 탐구하고 창출하는 것이 ‘세계개념’으로서의 철학의 과제이다. 따라서 짐멜이 칸트의 유산을 새로운 현실과 접목시키려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짐멜의 유산을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그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그의 ‘반~주의(反~主義)정신’과 칸트 정신을 계승하는 길일 것이다.⁹³⁾

92) 게오르그 짐멜, 『문화의 개념과 비극』, 59쪽.

93) G. Simmel, *Gesamtausgabe 20. Postume Veröffentlichungen. Ungedruckes. Schulpädagogik*, FfM, 2004, 261쪽. “나는 내가 지적 상속자 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그래야만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유산은 많은 상속자들에게 마치 현찰과 같이 배분될 것이며 각각의 상속자는 그의 몫을 그의 특성에 맞게끔 변형시켜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상속재산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Simmel, G., *Gesamtausgabe*, Bd. 5, FfM, 1992.
- Simmel, G., *Gesamtausgabe*, Bd. 7, FfM, 1995.
- Simmel, G., *Gesamtausgabe*, Bd. 8, FfM, 1993.
- Simmel, G., *Gesamtausgabe*, Bd. 9, FfM, 1997.
- Simmel, G., *Gesamtausgabe*, Bd. 14, FfM, 1996.
- Everett, Walter G., "Review of Kant", in: *Georg Simmel. Critical Assessments*(Edt. D. Frisby), Vol. I, London/ New York, 1994.
- Helle, H. J., *Dilthey, Simmel und Verstehen. Vorlesungen zur Geschichte der Soziologie*, FfM 1986.
- Hicks, G. Dawes, "Review of Kant", in: *Georg Simmel. Critical Assessments* (Edt. D. Frisby), Vol. I, London/ New York, 1994.
- Jung, W., *Simmel. Zur Einführung*, Hamburg 1990.
- Köhnke, K. Ch., *Der Junge Simmel in Theoriebeziehungen und sozialen Bewegungen*, FfM, 1996.
- 게오르크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 게오르크 짐멜, 『짐멜 선집』(김덕영 외 옮김), 1~3권, 도서출판 길, 2007.
-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게오르크 짐멜 연구』, 나남출판, 1999.
- 김덕영, 『주체·의미·문화. 문화의 철학과 사회학』, 나남출판, 2001.
- 김덕영, 「니체와 모더니티 이론: 짐멜과 베버의 해석과 수용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 25권 제3호 통권84호(200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김덕영, 『짐멜이나 베버냐?』, 한울아카데미, 2004.
-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의 가치론」, 『독일어문화권연구』 제15집 (2006년),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07.
- 김태원, 「문화에 이르는 길-게오르크 짐멜의 문화이론」, 『한국사회학』, 33집 (겨울호, 1999).

- 김태원, 『게오르그 짐멜연구, 문화이론과 사회이론』, 호미, 2001.
- 김태원, 『짐멜의 사회학』, 한국학술정보, 2007.
- 신용철, 「현대문화의 본질과 위기 그리고 인간-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17호(200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신용철, 「현대 문화와 돈 그리고 개인 : 짐멜(G. Simmel)의 『돈의 철학』에 나타난 문화와 돈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53집, 한국동서철학회, 2009.
- 이상엽, 「짐멜과 카시러의 문화철학 비교 연구」, 『철학논총』, 제50집, 새한철학회, 2007.
- 최성환, 「W. 딜타이와 G. Simmel의 삶의 개념과 이해개념」,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2009.
- 홍경자, 「짐멜의 비극적인 것」, 『해석학연구』, 제8집, 한국해석학회, 2001.
- 홍경자, 「짐멜과 야스퍼스의 삶과 정신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35집, 한국동서철학회, 2005.

G. Simmels Kant-Interpretation

Choi, Sung-Hwan · Ji, Kyung-Jin (Chung-Ang Univ.)

In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die Kant-Interpretation Simmels. Simmel hat sich in früheren Zeiten mit der Kantischen Philosophie beschäftigt. Für Simmel ist die Philosophie Kants sowohl ein Orientierungspunkt für die Ausbildung seiner eigenen Gedankenwelt, als auch ein Horizont, welcher überwunden werden muß. In diesem Sinne ist das Verhältnis Simmel zur Kantischen Philosophie ambivalent. Simmel nimmt Inhalt(Stoff)-Form Dualismus Kants an, aber kritisiert seine Weltanschauung als quantitativen Individualismus. Daher versucht er, anhand der Gedanken von Goethe und Nietzsche eine neue Weltanschauung zu entwerfen, nämlich einen qualitativen Individualismus. Trotzdem bleibt die Philosophie Kants für die Entwicklung von der Philosophie Simmels ausschlaggebend. Simmel erfüllt den Anspruch Kants, entsprechend der gesellschaftlichen-historischen Situation zu philosophieren.

Key words: Intellektualismus, Kant-Philologie, Kantwissenschaft, quantitativer Individualismus, qualitativer Individualismus, Kant, Simmel

최성환 e-mail: shchoi@cau.ac.kr

투 고 일	2013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3년 05월 01일
게재확정	2013년 05월 13일